

느림보 태풍 '솔릭' 호남 강타 ... 강풍·폭우 피해 '초비상'



제19호 태풍 솔릭이 광주·전남지역에 상륙한 23일 오후 목포시 보광동 연안여객선터미널 인근의 한 어구 상점 주인이 쌓아둔 물품에 포장을 씌운 뒤 단단하게 고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오전까지가 고비 ... 해상교량 전면 통제

제19호 태풍 '솔릭'이 24일 새벽 영광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는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지역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23일 오후부터 간만 낙하, 가로수 쓰러짐 등의 강풍 피해가 광주·전남도 재난상황실에 접수되고 있으며, 이날 밤과 24일 오전까지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7면> '솔릭'은 시속 8k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서 초속 30m를 넘는 강풍과 함께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중심기압 955hPa(헥토파스칼)의 강한 중형급 태풍인 '솔릭'은 이날 오후 6시 진도 해상에 근접했으며, 이에 따라 전남 전 해상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다. 순간풍속 초속 35.2m, 누적 강수는 평균 19.7mm다. 특히 진도는 130mm 폭우가 쏟아졌다. 완도

87mm, 신안 60mm, 지리산 51mm의 비가 내렸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비상 근무에 들어갔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228개소에 대한 예찰을 강화했다. 거금대교와 소록대교 등 고층 해상교량은 전면 통제됐다. 광주·여수·무안공항의 항공편(68편)도 모두 결항됐다. 여객선은 목포·여수·완도 55개항로 92척 전 항로가 막혔다. 광주 전체 초·중·고등학교는 이날 하루 단축수업을 했고 전남은 모든 학교가 휴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19호 태풍 '솔릭'의 한반도 상륙과 관련해 "국가적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총력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지하에 위치한 국가위기관리센터로 찾아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먼저"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소속된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태풍이 완전히 물러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두환, 알츠하이머 진단 투병? 측근 주장에 "5·18 재판·추징금 모면 꿈수 아니냐"



5·18 광주민중항쟁 유혈진압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전두환(87·사진) 전 대통령이 치매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인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건강이상, 재판관할 위반 등을 주장하며 광주 법정에서는 것을 거부해왔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출석을 요구하자 최근 변호인을 통해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5년째 투병 중"이

라고 밝혔다. '치매설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법정 출석 및 진술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관계자는 "저희는 그동안 재판관할 위반 주장과 함께 알츠하이머 진단서, 각종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며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법정 출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알츠하이머 진단' 등 건강이상설이 법적책임 회피를 위한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지난 21일 전 전 대통령 변호인 주장대로 "재판을 재판 그대로 보달라. 감정을 신지 말아달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故) 조비호 신부님을 가리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멸적인 거짓말쟁이'라고 썼다. 검찰은 "수사 결과 헬기사격은 실재했으며 전 전 대통령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부쳤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위안자권 저장성장 등 대표단 전남·효성 방문

오늘 전남도-중국 저장성 자매결연 20주년 행사 ... 상호 교류사업 추진 등 논의

前 성장은 시진핑 주석

전남도와 중국 저장성 간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위안자권(袁家軍) 중국 저장성장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과 전통예술단 50여명이 24일 전남도를 방문한다. <관련기사 3면> 중국 저장성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성장을 지냈던 곳으로, 시 주석의 사실상 정치적 기반인 지역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위안자권 성장 등 정부 대표단은 24일 전남도청을 방문해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도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지역 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위안자권 성장



김영록 지사

도청 광장에 금목서를 기념식수하고, 우호 교류 사진전을 관람한다. 또한, 저녁에는 목포 남도소리 율림터에서 전남도와 저장성 전통예술단의 공연도 이뤄진다.

위안 성장 등 정부 대표단은 전남에서 1박을 한 뒤 다음날인 25일 상경해 효성그룹을 방문하고 26일 출국한다.

저장성 정부 대표단이 효성그룹을 방문하는 데는 국내 대기업 중 저장성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성그룹이 현재 중국 내 운영 중인 10개 법인 중 스파텍스 공장 등 5개의 제조법인이 저장성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해 전남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제14회 14세 & 세계 & 경제

읽다 보면 마지막 페이지가 지나고 책 내용이 끝난다. 책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내용이 끝나서 허무한데, 아쉬운 마음에 다시 넘겼던 장을 앞으로 펼치면 다시 내용이 펼쳐진다. 책 마지막 장의 경계를 책을 읽을 때와 책을 읽고 난 후로 확실히 나눠지게 하는 것 같다.

오수아 / 가보고 싶은 곳: 스위스

20살이 우리의 경계선 같다. 20살 이전에는 부모님의 우리 안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자란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부모님께 허락 받고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해서는 안 될 일과 갈 수 없는 곳도 참 많다. 하지만 20살이 되면 부모님의 보호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취를 한다거나, 알바를 할 수 있다.

명예인 / 장래의 꿈: 약사

광주 시내 중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한 후 중2학생들(만 14세)에게 주변에 있는 '경계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고 작은 그들의 세계를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시타미치 모토유키(작가) / 2018광주비엔날레
*이 프로젝트는 광주일보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함께합니다. 작품이 실린 신문은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됩니다.

장례문화의 전당 그린장례식장

400년 수령 소나무 향기 그윽한 곳, 보내는 이의 효심과 그리움으로 다시찾는

www.그린장례식장.com

경향없다고 아무데서나 장례를 치를 수 있나요? **꼭** 비교해 주세요. **비교할수록, 품격은 올라가고 장례비는 절감됩니다. 품격은 최고, 가격은 최저** 그린장례식장의 자랑입니다.

그린장례문화원
24시간 대기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문흥동 876-17)

전속모델 신 구 회장 김영관